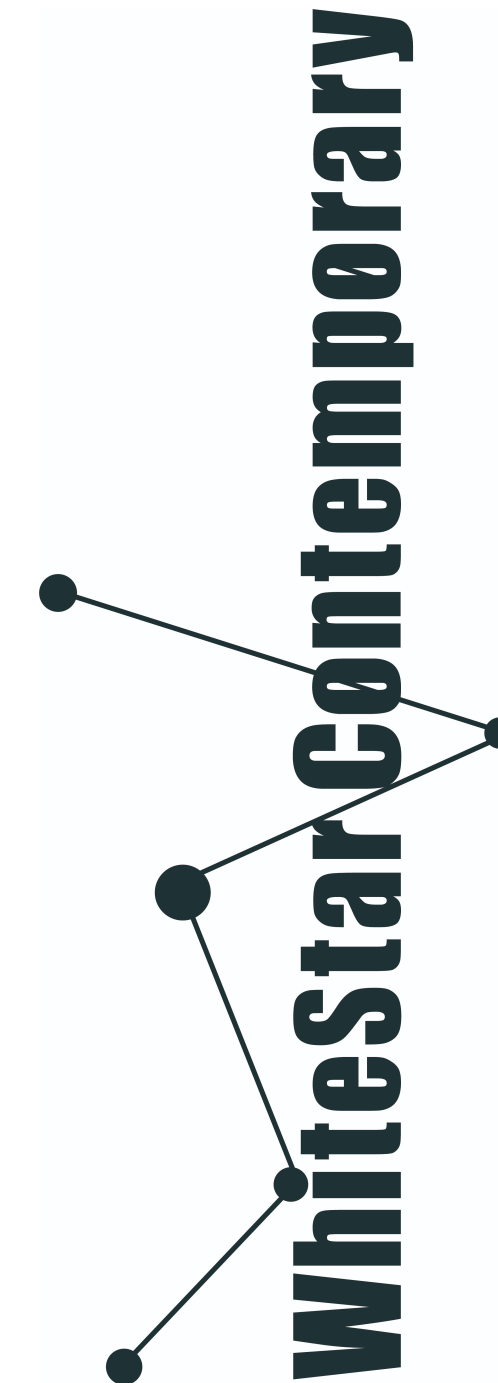


AR(augmented reality) SERVICE

- <VAPOR HOUSE>는 잠자는 공간, 소외된 공간에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 또 짧은 전시기간이 끝나면 연기처럼 사라진다. 2016년 아무도 찾지 않는 닫혀진 공간에서 전시를 열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유연하고 가벼운 '연기'같은 게릴라전시를 <VAPOR HOUSE>라 부르며 잉여 공간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스며들 듯 공간에 침투하는 전시형식은 '고체'와 같이 공간을 규정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기체'와 비슷하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소, 잠들어있는 공간을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VaporHouse> 2020년 프로젝트에서는 증강현실(AR)을 통해 신흥3동을 새롭게 바라보고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
- 신흥동 곳곳에 작가적 시선으로 구현되는 AR(증강현실)은 신흥3동 공간에 새로운 시선을 부여한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이지만 신흥 3동의 사물이나 건물, 공간과 병치되거나 관계맺음으로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유도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신흥3동의 잉여공간 속에서 장소성을 생각하게 하는 작업들, 현실 공간과 연계된 작업들이 공개된다.
- 이들 작업들은 아무런 언어적 발화를 하지 않고, 낯선 물성이 다가오거나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머물며, 익숙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부유하는 지역의 이슈를 사유하게끔 안내하거나 생경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들이 구현하는 증강현실은 엉뚱하고 이질적인 이미지를 던져놓은 듯 낯설고 친숙한(Uncanny) 일루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들의 느닷없는 판타지는 현실을 오히려 생경하게 반영하는 아이러니도 함께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의식_이찬주_임승균_장준호_김승연_김호은

PROMOTIONAL

NOT FOR SALE